

## 어머니의 특성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others' Characteristics on the Creativity of Gifted and Non-gifted Preschool Children

이순복(Soon Bok Lee)<sup>1)</sup>

전귀연(Kwee Yeon Jeon)<sup>2)</sup>

### ABSTRACT

Maternal personality, creative personality, and parenting self-efficacy were included in mother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were 89 gifted and 147 non-gifted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struments were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Torrance, 1984; 김영채, 2002), Revised NEO-Personality Inventory(Costa & McCrae, 1992), What Kind of Person Are You Scale of the Khatena-Torrance Creative Perception Inventory(Khatena & Torrance, 1976; 김영채, 2004), and Parenting Self-Efficacy Scale(최형성 & 정옥분, 2001). Results showed Disciplined Imagination of gifted preschoolers' mothers influenced children's Abstractness of Creativity, General Parenting Ability influenced Originality of Creativity, and Learning Guidance Ability influenced Abstractness of Titles of Creativity. Regarding non-gifted children, the Neuroticism, Acceptance of Authority and General Parenting Ability of mothers selectively influenced children's Abstractness and Elaborativeness of Creativity.

**Key Words** : 영재유아(gifted preschooler), 일반유아(non-gifted preschooler), 창의성(creativity), 성격(personality), 창의적 성격(creative personality),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 I. 서론

최근 들어 영재교육, 수월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다측면적인 영역에서 영재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6월 30일 고시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6차 유아교육 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인성

<sup>1)</sup> 위덕대학교 교육학부 유아교육전공 전임강사

<sup>2)</sup>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on Bok Lee, Division of Education, Uiduk University, Gangdong, Gyeongju, 780-713, Korea E-mail : mind1228@hanmail.net, sblee@uu.ac.kr

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중점적인 교육목표로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고시 제 1998-10호, 1998, p2, 2004 현재). 이러한 교육목표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영재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2),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의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서는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초등·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2월 22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발표로 인해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의 잠재성 극대화 교육은 현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지식정보화 세계의 고급 두뇌 양성이 한 나라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기대에 맞춰 영재아에 대한 창의성 계발은 우수한 인적 자원의 발굴과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1999, 제2조 2항)에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21세기의 영재교육은 고급 두뇌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국가적인 요청뿐만 아니라 영재아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한다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영재성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증가되어 왔다(Gowan, 1978; 신지은, 2002). Renzulli (1986)는 영재는 평균 이상의 높은 지능(Above Average Ability)과 창의성(Creativity), 과제집착력(Task Commitment)의 3요인을 공유해야 하는데, 영재성의 근본이 되는 요소는 창의성이라 말했으며, Gagne(1985)도 영재를 정의하는 네 영역 중의 하나로 창의성을 언급했고, Davis와 Rimm(1989) 역시 창의성을 영재 판별의 한 기

준으로 제시했다. Tannenbaum(1983)은 창의적인 성취를 이룬 성인을 영재라 보고, 영재와 고도의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창의성을 영재성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영재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고 계발시켜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창의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시도(전경원, 2005)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재성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일반적 지능만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반면 판별이 아닌 영재교육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창의성에 대해 창의성의 개념, 정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왔지만, 영재유아와 일반유아간 창의성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영재유아와 일반유아 사이에 창의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알아보는 연구는 영재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효과적인 유아영재교육을 위해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특히 영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유아들에게 가장 먼저 접하는 환경이면서, 사회화되고,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어머니 변인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영재성은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 등은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능적인 차이에 영향을 준다(Kagan & Havreven 1978). 영재아들의 타고난 능력은 부모의 적절한 사회·정서적 지지와 연결해 자극

을 줄 수 있는 인지적 환경을 제공해 줄 때 풍부해진다(Carole & Karen, 1997). 영재아는 일반아보다 사회·정서적 자극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영재아의 성취나 적응은 일반아에 비하여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전경원, 2000). 이는 최근의 영재의 정의가 단일 개념에서 다중개념(Gardner, 1985; Renzulli, 1986)으로 판별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의 영재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도 일치한다. 특히 Tannenbaum(1983)의 연구에서 영재성이란 영속적인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환경적인 요인, 영재성을 계발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의 유무에 따라 발현되거나 사장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선천적·후천적 요인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특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정의 교육적 배경, 부모의 태도, 양육방법 등은 영재성을 통한 재능계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Alvino, 1985). 자녀의 다양한 행동에 반응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로서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며, 과제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아동들은 문제의 대안을 더 잘 생각한다거나 또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창조적 성격과 자질을 발전시킬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조사 연구에서 진선미(2000)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좌절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 자녀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동참, 자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 교수·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Amabile, 1989; Tegano, Moran & Sawyers, 1991)은 유아기가 창의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임을 동의하고 있다(김수

연, 2003). 유아기는 창의성 및 상상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되고, 유아의 창의적인 상상력은 4세부터 4세 반 사이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고 하며, 유아기의 환경이 학업에 대한 압력이 없고, 부모와의 접촉시간이 길며 환경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특성을 밝히기에 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Torrance, 1976). 학령기 아동은 유아들에 비해 학교에서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동하고 교사 주도적 학습을 많이 하는 반면, 유아는 자신의 호기심이나 흥미에 따라 탐구학습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서 창의성 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적(Meeker, 1986)이다. Runco(1999)는 아동은 9세 경이 되면 관습이나 또래로부터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아동이 독창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기는 학업과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므로, 아동이 창의성에 있어서 성공적인 경험은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보인다(김판희, 2001). 그러므로, 유아기의 창의성과 어머니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isno(1996), Csikszentmihalyi(1988), Gardner(1993), Goertzel과 Goertzel(1962), Sternberg(1985) 등은 지적인 영재 혹은 창의적 성취를 이룬 인물이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고적(retrospective)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발달사를 추적하여 창의성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해왔다. 결과로 창의적 성취에 개인적 특성과 부모, 가족과 관련된 환경특성이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Bisno, 1996; Gardner, 1993; Csikszentmihalyi, 1988). 또한 Kerr과 Chopp(1999)은 어린 시기에 창의성이 뛰어났던 인물

들은 공통적으로 초기 가족 환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Weisberg, 1986; Tardif & Sternberg, 1988)도 창의적인 성취를 위해서 개인의 인지나 성격 특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자율성을 장려하는 등 가정의 심리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김수연, 2003).

그러나, 창의성에 대한 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학령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주로 관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정환경 중 물리적 가정 환경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장관호, 1999; 박숙희, 1991)하거나, 심리적 가정 환경을 연구하는 연구에서는 대부분 양육태도만(장상수, 2002; 서혜영, 2001)을 보거나, 어머니의 성격유형만을 보는 연구(이안님, 2000),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만을 보는 연구(정동희, 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지지적 양육행동(김수연, 2003) 등 어머니의 특성 중 단편적인 요인만을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위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등 양육의 정의적인 영역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었으나, 양육의 전반적인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인지적 요인과 창의성과의 관계 또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양육의 인지적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육효능감 요인(Coleman & Karraker, 1998; Johnston & Mash, 1989)이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들이 양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 자신들이 자녀에게 대하는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인 영역을 기술하

고 설명하는 것이다.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더욱더 많이 충고하고, 감독하거나, 자녀들에 대해 훨씬 반응적이며(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학교 숙제를 돕는 등의 장려적(promotive)이며, 예방적(preventative)인 양육전략을 사용한다(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또한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보다 나은 사회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Rodrique, Geffken, Clark, Hunt & Fishel, 1994)도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문태형, 2002).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 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증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 능력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Bornstein, Haynes, Azuma, Galperin, Maital, Ogino, Painer, Pascual, Pocheux, Rahn, Toda, Venuti, Vyt & Wright, 1998; Coleman & Karraker, 1997; 1996; 최형성, 2002 재인용)에서 인지적인 영역이 높은 영재유아에게 어머니들이 양육에 대해 어떠한 양육효능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영재유아의 창의력 발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재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재유아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이 영재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영재들의 성격에 대한 연구(배미란, 2002; 한기순, 2003), 성인의 성격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Laura, Lori & Sheri, 1996)와 어머니 변인을 들어 영재들의 영재성과 창의성 발현에 어머니의 어떤 성격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조사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 중 몇 가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유아의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라서 창의성 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박형주, 1994; 이안님, 2000; 전인락, 1994)는 연구 결과와 어머니의 창의적인 성격이 유아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정동희, 2003)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성격이론을 가장 잘 요약한다고 인정(Digman, 1990)되는 5요인 성격 검사와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창의적 성격검사를 통해서 영재 어머니 성격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5요인 성격 검사의 준거를 이용해서 영재 어머니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연구는 국내외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이는 영재유아의 영재성 발현에 어머니 성격 유형과 일반유아 어머니의 성격, 창의적 성격 유형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와 영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성격, 창의적 성격 요인을 살펴보면 앞으로 유아의 영재교육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5요인 인성 검사는 정서, 대인관계, 경험, 태도, 동기유형에서의 다양한 개인차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존의 인성 검사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경증이나 정서적 불안정성 같은 임상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재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영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특성에 대해 부분적인 관계를 보는 단편적인 연구에서 나아가 어머니의 정의적인 특성과 인지적인 특성 중 어떤 요인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인지적 창의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 특성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영재유아 89명과 일반유아 147명과 그 어머니 각각 89명과 147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대구, 포항 등 3개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영재유아들로 만 4,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영재유아는 지능 및 여러 가지 측면의 영재판별검사를 통해 선발된 유아들이다. 지능을 판별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활용되고 있는 WPPSI, WISC-III, K-ABC 등의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상위 15%이내에 포함되는 유아이며, 이는 Renzulli(1986)의 영재 세고리 모형 정의 중 지적인 측면 즉, 평균 이상의 높은 지능(Above Average Ability)을 보는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 부모 또는 교사의 추천, 부모용 영재행동 특성 체크리스트 작성, 부모와의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영재 판별을 받은 유아들이다. 또한 일반아 대상자는 서울, 대구, 포항 등 3개의 도시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유아로 한다.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 성별 분포

변인 구분	영재유아	일반유아	전체
연령			
4세	38(16.1%)	63(26.7%)	101(42.8%)
5세	51(21.6%)	84(35.6%)	135(57.2%)
전체	89(37.7%)	147(62.3%)	236(100.0%)
성별			
남	59(25.0%)	71(30.1%)	130(55.1%)
여	30(12.7%)	76(32.2%)	106(44.9%)
전체	89(37.7%)	147(62.3%)	236(100.0%)

대상자들은 본 연구자가 영재교육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창의성 검사 후 결과 및 상담을 해 준다는 전달사항을 전하고 난 후 동의를 한 어머니와, 그 자녀 4, 5세인 영재유아, 일반유아로 각각 100명, 200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창의성 검사, 어머니의 설문지를 실시했으나, 무성의한 결과지를 제외한 대상자들이다.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구성은 <표 1>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창의적 사고 검사

이 검사는 Torrance(1966, 1990 개정)가 개발한 창의성 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TTCT)로써, 본 연구에서는 김영채(1998, 2002 개정)에 의해서 번역되고 한국판의 채점기준과 규준이 제작된 도형 검사 A형을 사용하였다. TTCT검사는 동형검사로써 언어 검사(TTCT-Verbal A·B형)와 도형 검사(TTCT-Figure A·B)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검사에는 질문과 추측(ask and guess), 독특한 사용법(unusual uses), 독특한 질문법(unusual question), 가상적 사건(just suppose)으로 구성되었고, 도형검사는 그림 구성(picture construction), 그림완성(picture

completion), 그리고 선(line : A형)과 원(circle : B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검사의 경우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검사 점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유아일 경우 언어의 습득도가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교육적 배경이 비교적 배제될 수 있는 도형검사를 실시했다.

도형검사(A형)는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 소요 시간은 각 문항이 10분씩으로 30분이 소요되는 검사이나, 질문을 읽어주고, 언어의 기초적인 학습이 잘 이루어진 유아와 기초적인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들이 섞여 있어 TTCT 검사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진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의 도움으로 완성하도록 한 후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TTCT 하위요인은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대한 저항 등이며, 측정내용을 살펴보면 유창성은 문제자극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해석 가능한 반응들을 많이 산출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독창성은 문제자극에 대해 독특하거나 비일상적인 반응을 산출하는 능력이다. 제목의 추상성은 문제자극에 대해 산출한 반응의 제목이 요약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명명하는 능력을 말하며, 정교성은 제시된 자극도형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꾸미고 정교화하는 능력이다. 종결에 대한 저항은 정신적인 비약을 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동안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성급한 종결을 하지 않도록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채점은 2002년에 개정된 간단 채점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창의성 점수 각 하위요인별 점수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이는 TTCT의 창의성 평가표에서 유치용이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

별 표준점수를 이용하지 않고 원점수를 이용했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유창성 Cronbach's  $\alpha = .99$ , 독창성 Cronbach's  $\alpha = .98$ , 제목의 추상성 Cronbach's  $\alpha = .98$ , 정교성 Cronbach's  $\alpha = .98$ ,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Cronbach's  $\alpha = .97$  등이었다.

## 2) 어머니의 성격

본 연구에서는 Costa와 Macrae(1985)가 개발하고 이후 다시 재수정한 NEO-PI-R(Revised NEO-Personality Inventory)(Costa & McCrae, 1992)를 사용하였다. 하대현(1999)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5요인 인성검사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원척도를 번역하고 안창규(1997)의 검사를 참고하여 사용했다. 이 검사는 5가지의 성격 요인 즉, 신경증(48문항), 외향성(48문항), 지적개방성(48문항), 신뢰성(48문항), 유능성(48문항) 등을 측정하는 2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6세 이상의 남녀에게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신뢰도는 신경증 Cronbach's  $\alpha = .85$ , 외향성 Cronbach's  $\alpha = .78$ , 개방성 Cronbach's  $\alpha = .84$ , 친화성 Cronbach's  $\alpha = .81$ , 성실성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3)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채(1998)가 번역한 카테나-토란스 창의적 성격검사(Khatena-Torrance Creative Perception Inventory, KTCPI, 2004년 개정판)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제 I 부 :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검사(What Kind of Person Are You?

WKOPAY)와 제 II 부 : '어떤 나의 모습'검사(Something about Myself. SAM)라는 두 가지 창의적 성격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I 부의 창의적 성격검사를 사용하였다. 이유는 WKOPAY와 SAM검사는 창의성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서로 독립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같이 사용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WKOPAY는 검사의 매뉴얼에서 밝혀진 바대로 한국에서 전국에 걸쳐 표집된 초·중·고등학생, 성인 그리고 영재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이다.

제 I 부 WKOPAY의 신뢰도는 .71~.97이고 검사-재검사법을 이용한 신뢰도는 .76이다. WKOPAY의 측정요인은 창의적 성격지수 1개와 하위척도의 권위의 수용, 자신감, 탐구심, 타인에 대한 의식, 적극적인 상상력 5개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창의적인 질문만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상상력, 비창의적인 질문만을 제시하는 권위의 수용 등 2개의 하위요인만 측정하며 원점수를 이용했다. 하위 척도 5개 중 일부만 사용한 이유는 나머지 다른 3개의 하위요인은 창의적인 문항과 비창의적인 문항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최형성(2001)이 Dorsey(1999), Allen(1993), Johnson & Mash(1989)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전반적인 양육 능력(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7문항), 의사소통능력(9문항), 학습지도능력(6문항), 혼

육능력(4문항) 등이며,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양육효능감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양육능력 Cronbach's  $\alpha=.88$ ,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Cronbach's  $\alpha=.79$ , 의사소통능력 Cronbach's  $\alpha=.83$ , 학습지도능력 Cronbach's  $\alpha=.88$ , 훈육능력 Cronbach's  $\alpha=.78$ 이었다.

### 3. 통계분석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PC+ version 11.0을 이용하였다.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 특성의 차이를 비교를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창의적 성격, 성격, 양육효능감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유아의 창의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 성격, 양육효능감의 설명력을 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 성격,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분석 결과

### 1.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 분석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창의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표 2>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의 집단통계량 결과

	구 분	인원 (N)	평균 (M)	표준편차 (SD)	t
유창성	영재유아	89	23.719	6.0902	5.270***
	일반유아	147	19.265	6.4110	
독창성	영재유아	89	17.629	5.8278	6.025***
	일반유아	147	13.197	5.2547	
제목의 추상성	영재유아	89	5.820	5.2820	6.168***
	일반유아	147	2.000	3.2117	
정교성	영재유아	89	11.775	3.8280	7.797***
	일반유아	147	8.034	3.4091	
종결에 대한 저항	영재유아	89	7.427	3.4703	8.298***
	일반유아	147	3.864	2.6859	

\*\*\* $p<.001$

났다.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의 각 요인들은 영재유아들의 창의성 각 요인이 유의미하게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2.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특성 분석

영재유아의 어머니와 일반유아의 어머니의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간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특성 비교 분석 중 먼저 연령, 학력, 직업, 가족소득, 자녀수, 대상자녀의 출생순위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하위변인 중 학력(M=3.86, M=2.98), 가족소득(M=4.67, M=3.35), 자녀수(M=1.84, M=2.04), 출생순위(M= 2.15, M=2.37) 변인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재유아의 어머니와 일반유아의 어머니의 성격,



〈표 3〉 어머니의 특성과 유아의 창의성간의 t-test 분석 결과

구분	하위요인	분류	평균(M)	표준편차(SD)	T-값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연령	영재유아 어머니	3.42	.690	.332
		일반유아 어머니	3.39	.754	
	학력	영재유아 어머니	3.86	.647	8.594***
		일반유아 어머니	2.96	.964	
	직업	영재유아 어머니	2.09	1.951	-.655
		일반유아 어머니	2.25	1.739	
	가족소득	영재유아 어머니	4.67	1.210	8.318***
		일반유아 어머니	3.35	1.163	
	자녀수	영재유아 어머니	1.84	.500	-3.008**
		일반유아 어머니	2.04	.481	
출생순위	영재유아 어머니	2.15	.810	-2.203*	
	일반유아 어머니	2.37	.733		
창의적 성격	권위의 수용	영재유아 어머니	2.034	1.6057	-1.657
		일반유아 어머니	3.429	7.8339	
	상상력	영재유아 어머니	4.270	1.8201	-.183
		일반유아 어머니	4.374	5.1793	
성격	신경증	영재유아 어머니	2.8670	.32034	-1.889
		일반유아 어머니	2.9490	.29220	
	외향성	영재유아 어머니	3.2939	.29560	1.074
		일반유아 어머니	3.2537	.23053	
	개방성	영재유아 어머니	3.2816	.30454	2.760**
		일반유아 어머니	3.1543	.27473	
	친화성	영재유아 어머니	3.3542	.25819	-1.777
		일반유아 어머니	3.4213	.26200	
	성실성	영재유아 어머니	3.4355	.34545	.841
		일반유아 어머니	3.3969	.31659	
양육효능감	양육능력	영재유아 어머니	3.6479	.48893	2.958**
		일반유아 어머니	3.4634	.43909	
	건강능력	영재유아 어머니	4.0292	.48149	1.591
		일반유아 어머니	3.9276	.46835	
	의사소통능력	영재유아 어머니	3.9293	.37375	1.368
		일반유아 어머니	3.8544	.42280	
	학습지도능력	영재유아 어머니	3.9904	.55064	4.623***
		일반유아 어머니	3.6256	.60094	
	훈육능력	영재유아 어머니	3.9574	.41905	1.871*
		일반유아 어머니	3.8350	.52055	

\* $p < .05$  \*\* $p < .01$  \*\*\* $p < .001$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성격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개방성(M=3.28, M=3.15),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양육능력(M=3.65, M=3.46), 학습지도(M=3.99, M=3.63),

훈육능력(M=3.96, M=3.84)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하위 요인들은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일반유아 어머니들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 특성(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의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

어머니 특성(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한 결과(<표 4>참고),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수는 .65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의 위험(보통 상관계수 r값이 .7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이 채택되어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의성요인 중 하위요인 즉, 유창성, 독창성, 제목에 대한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대한 저항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영재유아 어머니의 특성 중 하위요인 즉, 창의적 성격, 성격,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들간에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영재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들이 어머니의 특성 하위 요인들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알아보았다.

1) 영재유아 어머니 특성(창의적 성격, 성격, 양육효능감)의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  
영재유아 어머니의 특성 변인과 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표에서는 유의미한 독립변인의 영역만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 중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등 2가지 하위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창의적 성격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중 양육능력( $\beta=.37, p<.05$ )이 독창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재 어머니의 학습지도능력( $\beta=.32, p<.05$ )은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유아 어머니가 양육능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독창성

<표 4>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창의적 성격	1.권위수용											
	2.상상력	.521**										
	3.신경증	.143*	.026									
	4.외향성	.021	.107	-.339**								
성격	5.개방성	.038	.128	-.133	.314**							
	6.친화성	-.147*	-.183**	-.214**	.099	.138						
	7.성실성	-.153*	-.090	-.491**	.399**	.255**	.161*					
양육 효능감	8.양육 능력	.042	.065	-.265**	.435**	.307**	.047	.606**				
	9.건강 능력	-.027	.010	-.194**	.344**	.243**	.056	.387**	.616**			
	10.의사 소통	-.030	.052	-.116	.355**	.301**	.083	.450**	.649**	.492**		
	11.학습 지도	-.002	.076	-.14*	.345**	.345**	-.096	.461**	.636**	.525**	.604**	
	12.훈육 능력	-.007	-.001	-.103	.22**	-.002	-.052	.314**	.435**	.357**	.559**	.519**

\* $p<.05$  \*\* $p<.01$

〈표 5〉 영재유아 어머니의 특성 변인의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R <sup>2</sup>	F
독창성/ 양육효능감	양육능력	4.389	.369*	.118	2.146
	건강능력	-.175	-.015		
	의사소통능력	-2.931	-.188		
	학습지도능력	.438	.042		
	훈육능력	1.777	.128		
추상성/ 창의적성격	권위의 수용	-.131	-.040	.095	1.427
	상상력	.883	.304*		
추상성/ 양육효능감	양육능력	-1.788	-.164	.075	1.297
	건강능력	.943	.086		
	의사소통능력	-3.353	-.235		
	학습지도능력	3.131	.324*		
	훈육능력	.711	.056		

\* $p < .05$

요인이 높아지며, 영재 어머니의 학습지도능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재유아의 독창성을 12% ( $R^2=.118$ ),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을 8% ( $R^2=.075$ )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 중 상상력( $\beta=.30, p<.05$ )이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재 어머니의 상상력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상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은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을 10% ( $R^2=.095$ )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유아 어머니 특성(창의적 성격, 성격, 양육효능감)의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  
일반유아 어머니의 특성 변인과 일반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표에서는 유의미한 독립변인의 영역만 제시되어 있다. 통계분석방법

은 영재유아 어머니 변인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일반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 중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등 2가지 하위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반유아 어머니의 성격, 양육효능감, 창의적 성격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성격의 하위요인으로 신경증( $\beta=-.46, p<.01$ )이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 신경증( $\beta=-.34, p<.05$ )이 정교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성격 중 권위의 수용( $\beta=-.545, p<.05$ )이 정교성 요인에, 양육효능감 중 양육능력( $\beta=.37, p<.01$ )은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신경증과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경증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요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성격은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을 16%, 정교성을 11%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유아 어머니가 양육능력이 높을수록 일반유아의

〈표 6〉 일반유아 어머니의 특성 변인의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R <sup>2</sup>	F
추상성/ 성격	신경증	-5.009	-.463**	.156	.505*
	외향성	-1.832	-.118		
	개방성	.658	.051		
	친화성	-2.527	-.210		
	성실성	-.521	-.022		
추상성/ 양육효능감	양육능력	2.795	.366**	.069	2.005
	건강능력	-.592	-.084		
	의사소통능력	-1.058	-.139		
	학습지도능력	-.708	-.130		
	훈육능력	-.232	-.037		
정교성/ 창의적성격	권위의 수용	-.237	-.545*	.062	1.532
	상상력	5.819E-02	.088		
정교성/ 성격	신경증	-3.624	-.343*	.108	1.550
	외향성	-1.525	-.101		
	개방성	.291	.023		
	친화성	-2.993	-.254		
	성실성	.378	.034		

\* $p < .05$  \*\* $p < .01$

제목의 추상성 요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을 7%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유아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 중 권위의 수용이 유아의 정교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권위의 수용과 유아의 정교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권위의 수용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정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은 유아의 정교성을 6%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재유아와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로 창의성 특성의 차이,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유아의 창의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유아의 창의성을 설명해 주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들 중 어머니의 성격, 창의적인 성격,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변인에 대해 탐색해 보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하여 서울, 대구, 포항 등 3개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재교육원과 유치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재유아 89명과 일반유아 147명과 그 어머니 각각 89명과 147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 검사를 실시하고,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격 척도, 창의적 성격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 질문지를 측정도구로 하여 검사 및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 5개 하

위요인 즉,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대한 저항 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유아의 창의성이 일반유아의 창의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원에 재원중인 유아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받고 있는 유아들이다. 사실상 영재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내용이 고등사고능력 향상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창의적인 과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창의적인 과제를 많이 접하지 않은 유아들보다 창의성 요인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만 4,5세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영재성과 창의성의 전체 및 하위 요인별 관계성을 살펴본 배혜선(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배혜선(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영재성 총점, 영재성 하위요인과 창의성의 측정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지적으로 우수한 아동과 비 우수아동 두 집단을 대상으로 창의성에 미치는 지능의 효과에서 지능이 창의성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Millgram(197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일부 교육계에서는 유아 영재 진단 평가의 고려점을 들어 유아영재교육에 대해서는 판별의 어려움 등의 이유(조용태, 2001)로 유아영재 판별의 한계점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며, 창의성 교육에 비해 유아영재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지나쳐 버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영재성과 창의성과의 관계가 확인된 점이 큰 의의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영재성을 판별할 때 지능만을 측정하는 단일 차원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창의성을 포함해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들의 내용과도 부합될 수 있다.

둘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영재유아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하위변인 중 학력(M=3.86, M=2.98), 가족소득(M=4.67, M=3.35), 자녀수(M=1.84, M=2.04), 출생순위(M=2.15, M=2.37) 변인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부모의 학력, 가족소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논문(Rimm & Lowe, 1988; 진선미, 2000)과 일치한다. 이는 유아영재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창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의적인 영재유아들은 가정에서 환경적인 이점과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연구했던 조석희(2002)의 연구에서 보면 1986-87년 만 3-5세 신동을 대상으로 대학교 2-4학년이 되었을 때를 추적 조사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이들인 경우 학업적인 성취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가정에서나 거의 동일한 비율로 출현할 수 있다(조석희, 1987). 다만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영재들이 잠재력을 계발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재유아의 형제수가 보다 적으며, 형제수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유아와의 상호작용, 형제자매끼리의 상호작용이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아의 창의성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재유아의 출생순위가 외동이나 첫째가 많으며, 일반유아의 출생순위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 점수가 높은 유아는 외동이나 첫째가 많다는 장관호(1999)의 논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제시된 영재유아의 창의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로부

더 창의성 점수가 높은 유아를 영재유아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동이나 첫째가 어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해결방식을 발견하고 시험해 보아야 할 입장에 자주 처하기 때문(장관호, 1999)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어머니의 인구통계적인 특징에 따라 유아의 창의성은 달라질 수 있고, 영향을 미치는 한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연구(Mackinnon, 1965; 임동숙, 1998)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영재유아의 어머니와 일반유아의 어머니의 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성격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개방성(M=3.28, M=3.15),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양육능력(M=3.65, M=3.46), 학습지도(M=3.99, M=3.63), 훈육능력(M=3.96, M=3.84)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하위 요인들은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일반유아 어머니들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성격 중 개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일반유아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 시 개방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문현상과 이안님(2001)의 연구에서 유아의 창의성이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논문과 일치한다.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융통성, 독창성과 상상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개방성은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며, 감정이 풍부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지적 호기심이 많은 정도를 의미한다. 영재유아 어머니가 평소 상상력을 많이 지니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아 유아의 창의성을 잘 격려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양육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1987)의 자아효능감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자아효능감을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보고, 성공의 경험은 효능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게 하는 반면, 실패는 효능감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상황에 적용시킨 것을 양육효능감(최형성, 2001)이라고 보고, 양육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성공적인 경험들은 양육효능감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으나, 힘들었던 양육의 경험은 양육효능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각 하위 요인들의 평균이 높은 것은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이 많다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일반유아 어머니들보다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양육에 관한 지식, 행동 등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습지도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일반유아 어머니들보다 학습지도면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영재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 각각 14명이 유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비교한 Moss(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논문에서는 영재아의 어머니들은 문제를 구조화시켜 준 다음 해결해야 할 목표와 과제를 관련시켜 보도록 함으로써 유아 스스로 해결 방안을 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유아 어머니들은 좀 더 지시적이고 스스로 해결방안에 도달하게끔 하기보다는 해답을 직접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재유아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조기에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훈육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일반유아 어머니들보다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에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영재아동과 우수한 성취를 나타낸 인물을 대상으로 한 논문(Walberg 등, 1981)에서 행동지도에 대한 일관성있는 예측 가능한 기대가 있었다는 논문과 권위가 있는 가족이 아동에게 보다 높은 성취를 촉진시킨다는 연구(Baumrind, 1989)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권위적(authoritative) 부모는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고 훈육 시 논리적 설명을 이용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녀들은 인지적 능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는 훈육이 일관적이고, 훈육능력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때 자녀의 인지적인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재유아 어머니 특성의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은 영재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 중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등 2가지 하위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창의적 성격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유아 어머니 특성의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은 일반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 중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등 2가지 하위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반유아 어머니의 성격, 양육효능감, 창의적 성격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재유아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 중 양육능력( $\beta=.37, p<.05$ )이 독창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재 어머니의 학습지도능력( $\beta=.32, p<.05$ )은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영재유아 어머니가 양육능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독창성 요인이 높아지며, 영재 어머니의 학습지도능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재유아의 독창성을 12% ( $R^2=.118$ ),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을 8% ( $R^2=.075$ )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최형성, 2001)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재유아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etzel & Jackson (1962)의 연구에서 영재 가족의 경우 부모들이 교육과 성취에서 매우 높은 표준을 설정하고 숙제 검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적, 문화적 활동을 추구한다는 논문 결과와 일치한다. Clack(1986)은 유아의 보다 복잡한 지식을 구성하는 두뇌 안의 경로 및 연결고리의 생성은 학습경험의 유형으로 만들어지는데, 부모가 이러한 학습경험의 유형을 창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Alvino(1985)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유아를 스스로 탐구심을 계발시키고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학습자료를 얼마나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습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가의 문제(조석희, 1987)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유아영재는 가정 환경에서 적절하고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접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탐색하고자하는 욕구와 문제해결능력을 발전시키고, 적절한 유아영재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의 문제 탐색하는 자세 등에 의해 창의적인 영재성 발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재유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는 지지적인 환경 제공, 자녀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에 대한 격려, 교사로서의 역할 등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 중 상상력 ( $\beta=.30, p<.05$ )이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재 어머니의 상상력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상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은 영재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을 10% ( $R^2=.095$ )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영재아동의 부모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부모노릇을 하며 사고와 느낌, 상상력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영재 자녀를 키운다(Getzel & Jackson, 1962; 김정휘, 2001)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머니 자신이 상상력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면 자녀의 환경탐색이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질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유아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유아 어머니의 성격의 하위요인으로 신경증 ( $\beta=-.46, p<.01$ )이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 신경증 ( $\beta=-.34, p<.05$ )이 정교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성격 중 권위의 수용( $\beta= -.545, p<.05$ )이 정교성 요인에, 양육효능감 중 양육능력( $\beta=.37, p<.01$ )은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신경증과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경증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요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성격은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을 16%, 정교성을 11%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유아 어머니가 양육능력이 높을수록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요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을 7%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유아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 중 권위의 수용이 유아의 정교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권위의 수용과 유아의 정교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권위의 수용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정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은 유아의 정교성을 6%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은 정서적 안정성이나 적응의 수준을 측정(안창규, 1997)하고 있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자신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스트레스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아 어머니가 평소 불안, 적대감, 우울, 충동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을수록 유아의 창의성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권위의 수용은 복종적이고, 예의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며, 힘있는 사람을 쉽게 인정하는 것(김영채, 2004)이며, 비창의적인 질문들이다. 어머니가 평소 권위에 대해 복종적이고, 힘있는 사람을 쉽게 인정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면 유아의 과제탐색이나 문제해결 시에도 정해진 대로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며,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평소 어머니의 권위에 대한 수용을 낮게 함으로써 유아의 창의성을 높여 주는 양육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유아 어머니들이 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최형성, 2001)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일반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발달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 없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송규운, 2002). 창의성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방해하는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면 타고난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요인을 적게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창의성 증진을 위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된다면 무한한 창의성이 계발될 수 있다고 본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 ‘일찍 익으면 일찍 썩는다’ 등의 우리나라 속담 신화는 조기 판별되어 일찍부터 영재아를 무리한 교육을 시키고, 적성에 맞지 않는 영역을 강요하여 힘들게 하거나, 영재아 부모가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몰아대서 아동이 나오되게 만들기도 하고, 영재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 환경, 다양한 지적인 자극,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부족하여 자녀를 미성취영재(underachiever)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김정휘, 2001)을 대변해주는 신화라 볼 수 있다.

훌륭한 부모역할은 모든 유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영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조기에 발견된 영재성이 반드시 높은 학업수행능력, 높은 성취를 기대하여 그에 미치지 못했을 때 자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창의성은 길러질 수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맥락 속에서 유아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놀이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격려해 주며, 창의성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하는 가정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창의적인 유아의 창의력이 계발됨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적응력이 증진될 것이다.

이처럼 조기에 영재성이 발견되더라도 유아의 잠재적인 능력 외에 외부의 환경 특히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 더 발달될 수도 있고, 퇴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볼 때 영재유아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재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결국 영재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유아의 발달 환경과 가족이 자녀의 최상의 발달을 위해 어떻게 지원해줘야 할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결국 모든 가족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접적인 양육과 관련해 정의적,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질적인 연구를 해 봄으로써 다층면에서의 영재유아와 어머니의 특성 관계를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유아영재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또한, 영역 일반적인 창의성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역 특수적인 수학, 과학, 언어, 예술, 정보 등의 영역에서의 영재성을 가진 유아의 창의성, 부모의 특성 등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 K-2 운동, 초등학교 연계교육의 활성화 흐름에 맞춰 유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에 창의성과 가정의 환경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순차적 접근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8-10호.
- 교육인적자원부(2002).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김명숙(2001). 통합적 창의성 모형의 구성. *교육심리연구*, 15(3), 5-27.

- 김명숙 · 정대련 · 이종희(2003). 과학영재와 일반아의 창의적 사고, 인성, 환경과 과학영역의 창의적 수행에서의 성차. *한국아동학회지*, 24(3), 1-13.
- 김수연(2003).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간의 구조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채(2002). Torrance TTCT(도형) A형. 척도 Manual. 토란스 창의력 한국 FPSP/현곡 R&D.
- 김영채(2004).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척도 Manual. 토란스 창의력 한국 FPSP/현곡 R&D.
- 김정휘(2001).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의 역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정휘(2001). 영재자녀는 부모가 만든다. *교육연구*, 18, 61-109.
- 김관희(2001). 유아기 창의성에 관한 연구의 최근동향. *아동교육*, 10(2), 105-122.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박숙희(1991). 가정환경, 인지양식, 창의성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숙희 · 이경화 · 이신동 · 최병연(2002). *유아영재교육의 이해*. 서울 : 학문사.
- 박형주(1994). 창의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미란(2002). 5요인 인성모형에 기초한 과학영재들의 성격 연구. *연세교육연구*, 15(1), 55-75.
- 배혜선(2003). 유아의 영재성과 창의성의 관계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혜영(2001). 초등 영재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규운 · 윤정진 · 황동주(2002). 유아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연구*, 22(3), 313-338.
- 송수지(1999). 유아영재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민(2001).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유아영재의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지은 · 한기순 · 정현철 · 박병건 · 최승언(2002).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은 창의성에서 어떻게 다른가? :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1), 158-175.
- 안창규(1997). *NEO 인성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 한국가이던스.
- 이안님(2000).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유아의 자아개념 및 창의성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1996). *지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재은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창지사.
- 임동숙(1998).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창의성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관호(2000). 유아 및 부모의 특성과 창의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상수(2002).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창의성과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원(2005). *새로운 영재재능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 전경원(2000). *동 · 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학문사.
- 전일락(1994). 아동의 창의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동희(2003).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과 유아의 창의성 및 인지처리양식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석희(1987). 취학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 및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50, 60-64.
- 조석희(2000).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 발전 방안-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안) 제정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0-12*.
- 조석희(2002). *영재교육의 기본이념과 원칙*. 한국교육개발원.
- 조용태(2001). 유아 영재진단 평가 체제. 미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진선미(2000). 영재 유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 ·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하대현(1999). 5요인 인성검사 요강(고등학생용).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
- 한기순(2003). 과학영재들의 사고양식과 5인성 요인 간의 관계. *한국영재학회*, 13(1), 43-63.
- Albino, G.(1985). *Parent' Guide to Raising a Gifted Child; Recognizing and developing your child's potential*.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Allen, E. C.(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Amabile, T. M.(1989). *Growing up Creative : Nurturing a Lifetime of Creativity*.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 Freeman & Company.
- Baumrind, D.(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Ed), *The nature*.
- Bisno, M. H.(1996). *Memories Of Parental Attitudes And Child-Rearing Behaviors Among The Intellectually Gifted And Crea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Berkeley, Alameda.
- Bornstein, Haynes, Azuma, Galperin, Maital, Ogino, Painer, Pascual, Pocheux, Rahn, Toda, Venuti, Vyt., & Wright(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4.
- Csikszentmihalyi(1988). *Society, culture and person : A systems view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The nature of creativity*(pp. 325-33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ol E H.(1991). *Parent-Child Relationship, Personalities, And Family Environments Of High-Achieving Gifted Students*. Ed. D.
- Carole A. M., & Karen K, C.(1997). *Parenting-a life span perspective*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Clack, B.(1986). *Optimizing Learning*. New York, NY : Merrill.
- Coleman & Karraker(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sta & Macrae(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 MaCrae(1992). *NEO-PI-R(Revised NEO-Personality Inventory*.
- Davism, G, A. & Rimm, S(1989).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Digman. J. M.(1990). *personality structure :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Dorsey(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Gagne(1985). *Giftedness and talent : Reexamining a reexamination of the definitions*. *Gifted Child Quarterly*, 29, 103-112.
- Gowan, J. C.(1978). *Creativity and the gifted child movement*.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2, 1-13.
-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 Gardner. H.(1993). *Creating minds*. New York : Basic.
- Getzels, J., & Jackson, P.(1962). *Creativity and intelligence : Exploration with the Gifted child*. New York : Willey.
- Goertzel, V., & Goertzel, M.G.(1962). *Cradles of eminence*. Boston : Little, Brawn.
- Johns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agan & Havreven(1978). T. K(1978). *The Family*. New York : Norton@co.
- Kerr, B., & Chopp, C.(1999). Families and creativity. In M.A. Runco, & R. P. Steven, *Encyclopedia of Creativity*(vol. 1)(pp. 709-715). SD : Academic Press.
- Kevin. E.(2001). Family Factors And Self - Esteem In Gifted Versus Nongifted Children. Ph.D. Seton Hall University.
- Laura, A. K., Lori, M. W., & Sheri, J. B.(1996). Creativity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189-203.
- Meeker, M. N., & Meeker, R.(1986). The SOI system for gifted education. In J. S. Renzulli(Ed.), *Systems and models for developing programs for the gifted and talented*(194-215). Mansfield Center, CT : Creative Learning Press.
- Millgram, R. M., & Millgram, N. A.(197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gifted Israeli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5, 185-192.
- Moss, E. S.(1983). *Mothers and gifted preschoolers-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ontreal.
- Renzulli, J. S.(1986). Identifying Key features in programs for the gifted. *Exceptional Children*, 35, 217-221.
- Rimm, S. B. and Lowe, B.(1988). Family environments og underachieving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2, 353-359.
- Runco, M. A.(1999). Developmental trends in creative abilities and potentials. In M.A. Runco, & S.R. Pritzker(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vol. 1) (pp. 537-540). CA : Academic Press.
- Sternberg, R. J.(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07-627.
- Tannenbaum(1983). A. J.(1983). *Gifted Children :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 New York : Macmillan.
- Tardif, T. Z., & Sternberg, R. J.(1988). What do we know about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429-44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gano, Moran & Sawyers(1991). Creativity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National Educ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 Torrance, E, P.(1976). *Guiding Creative Talent*. New York : Robert E. Krieger.
- Torrance, E, P.(1976). Khatena-Torrance Creative Perception Inventory, 김영채(번역, 1988). Khatena-torrance 창의적 성격검사요강.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Torrance, E, P.(1984).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Personal press, Inc.
- Walberg, H. J., Tsai, S., Weinstein, T., Gabriel, C. L., Rasher, S,P., Rosecrans, T., Robai, E., Ide, J., Trujillo, M., & Vukosavich, P.(1981). Childhood trait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highly eminent adults. *Gifted Child Quarterly*, 25, 103-107.
- Weisberg, R. W.(1986). *Creativity, Genius and Other Myths*. New York : Freeman.

2005년 2월 26일 투고 : 2005년 5월 3일 채택